



## ‘과학기술중심사회로 가는 길’ 대토론회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시중)와 매일경제가 공동주최한 ‘과학기술중심사회로 가는 길’ 대토론회가 11월 11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과학기술 부총리 승격 등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을 계기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대토론회에는 오 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 장대한 매일경제 신문사·TV 회장, 김시중 과총 회장, 홍창선, 서상기 국회의원, 손봉호 동덕여대총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축을 강조하는 오명 과학기술부총리.

장, 이상천 영남대 총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등 정·관·학·연 관계자 및 기업체 저명인사, 과학기술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과학기술인 및 과학기술단체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과 과제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R&D에 산의 효율적 집행에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국민들이 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과의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과학기술이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 ‘과학기술인 헌장’ 선포

대토론회에 앞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인이 지녀야 할 연구자세와 사명감을 제시한 ‘과학기술인 헌장’을 선포했다.



장대한 매일경제 회장의 축사.



왼쪽부터 김태유 서울대 교수, 이상천 영남대 총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서상기·홍창선 국회의원, 박승덕 과총 부회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정명희 여성과학기술인회장



대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을 본 이관 전 과기부장관



종합토론 진행을 본 박승덕 과총 부회장



과총 김시중 회장이 과학기술인 현장을 선포했다.

과학기술인 현장은 과학기술자들이 미래 사회를 여는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 대한 결의를 다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제정됐다.

과학기술인 현장 선포식에 이어 이공계 인력에 대한 병역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과총에서는 김두성 병무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라”(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효율적 평가시스템 갖추고 평가전문인력 양성하라”(이상



전의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오른쪽)이 과학기술인현장의 제정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시중 회장이 김두성 병무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천 영남대 총장)

“일반인의 과학 이해 넓히고 과기정책 수립에 과기인 참여 확대해야”(서상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과학기술 정보 소통 위해 영어 공용화 검토 필요”(김영길 한동대 총장)

11일 한국과학기술학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중심사회로 가는 길 대토론회에 참석한 사회 저명 인사들이 우리사회가 ‘과학기술중심사회’로 가기 위해 제시한 제언들이다.

과학기술 중심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큰 주제아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과 과제’와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과제’라는 2개의 소주제로 나눠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과학기술인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 R&D(연구개발)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부와 과학기술인들이 사회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역할과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 ◇ R&D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홍창선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은 “국가 R&D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새로 출범한 과학기술 체계는 국가 R&D예산



홍창선 국회의원

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각 부처의 협조와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체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과 균형 발전이라는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상천 영남대 총장

이상천 영남대 총장은 과학기술정책은 선택과 집중 원칙과 함께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상호 보완되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과학기술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혁신본부는 전문성을 갖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와함께 “혁신본부는 과학기술부를 위한 혁신본부가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 전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에 기대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국가 R&D예산은 7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기초과학 연구가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혁신본부는 기초연구 활성화에 치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산업체나 연구기관이 필요한 우수 과학인재를 양성해 제때 공급하는 것도 과학기술 혁신본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 중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과학기술의 산업화 작업

은 민간주도로 이뤄져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규 과학기술 혁신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은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실행된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그 중심에서 기술개발, 성과확산,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정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임 본부장은 또 효율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 정부는 초기시장 진출과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하고 민간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집중투자해 핵심기술의 실용화와 초기시장 선점에 주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은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오늘날 개인과 공동체의 경제적 수준과 경쟁력 그리고 문화의 성격을 가장 크게 결정하는 것은 과학기술”이라며 “최근 들어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과제는 더욱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과학기술인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보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너무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계 스스로 기초과학을 중시하고 기초과학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풍토와 대우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 총장은 또 일반 국민들과 같은 비전문가들도 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의 언어가 아닌 사용자의 언어로 사고하고 전달하는 데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 연구 윤리의식규정 제정해야

토론자들은 과학자들의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사명감을 재인식하는 등 윤리성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서상기 국회의원

손봉호 총장은 한국의 과학기술계는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를 표절하고 개발한 기술을 복사하는 폐습은 없어져야 한다며 윤리성 회복에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서상기 의원(한나라



정명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당도 “과학기술계가 국민의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좋은 연구 성과를 더 내야 한다”며 “과학기술계 스스로 내부적인 다짐과 각오부터 새로이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명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은 “자연과학도들은 자연의 섭리나 법칙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람들인데 자연을 관찰하는 것처럼 솔직하자”며 자성론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과기인들이 솔직하고 투명하게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예산이 집행될 때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명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은 “자연과학도들은 자연의 섭리나 법칙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람들인데 자연을 관찰하는 것처럼 솔직하자”며 자성론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과기인들이 솔직하고 투명하게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예산이 집행될 때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야

서상기 의원은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만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미디어나 정치권 국민 등 외부 사람들과 교류와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방자치단체나 국회 등 정치권과 정부에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많이 진출해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영길 한동대 총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은 “과학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에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 당시 서양에서 라틴어가 학문의 공용어로 쓰임으로써 과학정보의 소통이 쉬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과학의 발전은 범세계적 교류를 통해 이뤄지고 과학기술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장벽이 제거되고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이루어지는 개방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런 의미에서 과학기술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기초과학기술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교환이 필수적”이라며 “오늘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서는 영어가 세계 한국어로서 과학기술 진흥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창의성 있는 인재 육성해야

김영길 총장은 “나라 경제가 발전하려면 대학과 기업이 제



권이혁 과총 명예회장이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주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은 만들어질 수 없다”며 기업이 바라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찍기 위주의 입시제도보다는 상상력을 중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윤우 부회장도 “국민의 과학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가 과학기술계에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 과학기술인들이 뭉쳐 과학기술 발전 이뤄야

대토론회에 이어 계속해서 ‘과학기술 부총리 제재출범’ 축하 리셉션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권이혁 과총 명예회장은 “과학기술 부총리체제 출범은 과학기술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 명예회장은 “과학기술 부총리 승격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과총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김시중 회장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승격시켜줄 것을 공개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명예회장은 “오 명 장관이 과학기술 부총리로 승격된 것을 축하하며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 출범을 계기로 더욱 단결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나가자!’”하고 건배를 제의했다. ㉓

정리\_ 위정환 매일경제 기자